

 <b>보 도 자 료</b> 2013.8.26.(월)	행사문의	홍승아 연구위원 (02-3156-7149)
	언론담당	황애리 홍보담당 (02-3156-7296)
	보도일자	2013.8.26.(월)
	※ 총 11쪽 (붙임 포함) <a href="http://www.kwdi.re.kr">www.kwdi.re.kr</a>	

## 아빠의 육아참여, 자녀양육을 위한 성평등한 부모역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 제도와 실행효과” 주제로 핀란드, 스웨덴, 독일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는 국제심포지엄 개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최금숙)은 오는 8월 28일(수)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제도와 실행효과”를 주제로 개원 3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후원한다.
- 이번 행사는 우리보다 앞서서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장려하고 제도 마련에 노력해 온 핀란드, 스웨덴,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 최금숙 원장은 “맞벌이 부모가 증가면서 자녀양육의 문제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실제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행사 개최의 의의를 밝혔다.

-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서는 핀란드, 스웨덴, 독일의 가족 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각국의 남성 육아휴직 제도 사례를 발표한다.
- “한국 남성의 육아휴직 :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는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남성의 육아휴직 현황과 우리나라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경험 사례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 홍승아 연구위원은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경험은 육아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해줄 뿐 아니라 부인의 직장생활을 지원하는 등 가족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 하지만, 동시에 육아휴직 이용의 장애요인으로서는 현재의 급여수준이 (통상임금의 40%, 최대 100만원) 휴직기간 동안의 경제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어려운 점, 직장 내 승진 및 업무 배치 등에서의 불이익 등을 경험하고 있다.
  - 따라서 남성 육아휴직 사용 확대를 위해선 남녀가 모두 ‘동등한 부모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 아니타 하타야(Anita Haataja) 핀란드 사회보장보험청(Kela) 선임연구위원은 “핀란드의 육아휴직제도와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주제로, 핀란드 육아휴직 제도의 특징과 현황을 소개한다.

- C. 필립 황(C. Philip Hwang) 스웨덴 예테보리대(Gothenburg University) 교수는 “스웨덴 사례: 부성, 부모휴가, 직장 내 장애요인들”을 주제로 아버지들에게 유급 육아휴직을 실시한 최초의 국가인 스웨덴의 육아휴직 제도를 소개하고, 스웨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에 있어 직장 내 장애요인들을 살펴본다.
  
- 안드레아스 씨먼(Andreas Thiemann) 독일 베를린 경제연구소(DIW Berlin) 연구원은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활용: 독일 사례”를 주제로 지난 2007년 독일 육아휴직제도 개혁 이후 독일 가족정책의 변화를 소개한다.

- 붙임 1. 발표 주요내용  
2. 행사 개요

## 붙임 1 발표 주요내용

### 발표 1 : 핀란드의 육아휴직제도와 아버지의 양육참여

Anita Haataja(핀란드 Kela 선임연구위원)

#### □ 핀란드 육아휴직제도의 특징

- 핀란드는 남녀 동등권에 대한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갖고 있음.
  - 1980년 처음으로 남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함.
  - 남성의 육아참여는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 증진, 여성의 조기 복직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노르웨이나 스웨덴에서는 1990년대 남성할당제를 도입한 데 비해, 핀란드에서는 2003년 2주간의 부성휴가를 도입함.
- 육아휴직 급여 재원에는 건강보험= 고용주(2.04%) + 근로자(0.74%) + 정부(소득이 없는 부모를 대상으로 최저 수준의 급여를 지원)가 기여하고 있음.

#### □ 핀란드 육아휴직 사용현황

- 핀란드에서는 여전히 여성들이 집중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음.
  - 핀란드 여성기업인협회에서는 수년째 남녀가 육아휴직을 동등하게 사용하고, 고용주는 보다 높은 급여 대체율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
- 핀란드에는 가정양육수당제도가 있어서 남녀의 동등한 부모휴가 사용에 부정적인 영향 미치고 있음.
  - 핀란드의 경우, 가정양육수당제도가 있어서 오히려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함.
  - 가정양육수당제도는 또한 정부가 양질의 보육서비스에 투자하고 노력해야 할 의무를 보다 값싼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음. 다시 말해 “가정에서 양육하는 어머니” 역할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발표 2 : 스웨덴 사례: 부성, 부모휴가, 직장 내 장애요인들

C. Philip Hwang(스웨덴 Gothenburg University 교수)

### □ 스웨덴 육아휴직제도의 특징

- 스웨덴은 1974년 아버지들에게 유급 육아휴직을 실시한 최초의 국가임.
  - 1977년 국가노동시장위원회(National Labor Market Board)는 “남성이 여성과 동일한 기준으로 자녀를 책임질 권리는 반드시 인정되고 권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함.
- 남성(60일) + 여성(60일) + 360일(공동사용)으로 총 480일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함.
- **임시 육아휴직**
  - 자녀가 12세가 되기 전까지는 매년, 12~15세까지는 의사의 증명서가 있으면 자녀 한 명당 120일간 사용가능함.
  - 소득 80%의 유급휴직으로 자녀가 아플 경우에도 사용가능함.

### □ 육아휴직 사용이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

- Haas & Hwang, 1996년과 2008년 두 가지 연구를 통해 시간변화에 따른 육아휴직 이용형태의 변화를 추적한 결과, 자녀의 연령이 어릴 때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한 경우 아이들과의 접촉에 더 큰 만족감을 표시함.
  - 육아휴직을 한 아버지는 자녀와의 감정적 관계를 더 가깝게 발전함 (Chronholm, 2004)
  - 육아휴직은 남성 한부모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Duvander & Jans, 2009)

### □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직장 내 장애요인들

- 스웨덴 대기업을 대상으로 직장의 공식적 지지와 비공식적 지지를 2개 연도를 비교한 결과, 직장에서 지지를 받는다고 인식할수록 육아휴직 가능성 높게 나타남.
  - 고용주, 상사, 동료의 부정적 태도가 육아휴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공식적 지원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신호는 최고위직 남성임원의 육아휴직 여부임.

: 1993년에는 32% 정도의 회사에서 고위직 임원 중 육아휴직 남성임원이 있었으나, 2006년에는 88%의 회사에서 고위직 임원이 육아휴직 이용

## 여성정책 3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품다

- 기업규모가 클수록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백에 대처할 여력이 더 많고, 남성 육아에 대한 관심이 커서 육아휴직 이용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남.
-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남성들이 민간부문 종사자보다 육아휴직일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조직 내 여성비율이 높은 직장이 남성의 육아휴직에 더 우호적인지에 대한 여부는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 않음.

### 발표 3 :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활용: 독일 사례

Andreas Thiemann(독일 DIW Berlin 연구원)

#### □ 독일 육아휴직제도의 특징

- 독일의 육아휴직제도는 2007년 거대한 개혁으로 “독일 가족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으며,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음.
  - 개혁 이전과 마찬가지로 3년간 육아휴직은 그대로이지만, 유급 휴직기간을 단축하고, 급여율을 인상함.
  - 유급수당 지급기간은 반으로 줄여 12개월로 하는 한편, 12개월간 임금의 65-67%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함.
  -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면 추가로 2개월간 새로 도입된 육아수당을 지급함. 이는 남성이 자녀양육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임.

#### □ 독일 육아휴직 사용현황

- 연방통계청의 육아휴직 사용 관련 데이터(2013)에 따르면.
  - 2007년 제도 개혁 이후 육아휴직 남성이 5.4%(2007)에서 27.3%(2011)로 증가함.
  - 육아수당이 과거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저소득 여성에게 근로에 대한 인센티브로 작용함.
  - 유급 휴직기간을 줄임으로써 여성의 복직이 빨라질 것으로 예측됨.

#### □ 시사점

- 독일의 사례는 관련 정책의 변화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에 영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정확히 2개월 동안 육아 수당을 받는 남성의 비율이 높아진 것은 새로 도입된 2개월간의 “Daddy Months”에 남성들이 실제로 반응하고 있음을 시사함.

## 발표 4 : 한국 남성의 육아휴직 : 성과와 과제

홍승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 한국 육아휴직제도의 특징

-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남성에게 별도로 1년간 육아휴직 권리를 부여함.
- 육아휴직급여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함(2010).
- 배우자출산휴가제도를 시행함(5일/3일 유급).

### □ 한국 육아휴직 사용현황

- 고용노동부(2012)에 따르면, 출산 휴가 이후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21.2%(2003)-> 26%(2005)-> 55.1%(2010)->68.6%(201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현재 2.8%로 여전히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성별 육아휴직 사용일수에서는 성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 이러한 현실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이용할 경우에는 외국과는 달리 충분한 기간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표1> 성별 육아휴직 이용자수 및 사용일수

단위: 명, 일, 백만원

구분	2005		2010		2012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이용자수	10,492	208	40,913	819	62,279	1,790
비율	98.1%	1.9%	98.1%	1.9%	97.2%	2.8%
평균 사용일수	211	185	281	240	289	238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백서」 각년도, 통계청(2013).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2013.1.28. 기준)

□ 한국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결과

- 이용동기는 육아참여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경우와 아내의 건강, 직장여건, 보육서비스 등의 문제로 인해 다소 소극적인 형태로 선택하는 경우임.
- 이용경험은 육아에서의 성취감, 아이와의 관계에서 애착과 교감, 부인의 직장생활 지원, 부부관계의 여유와 상호이해 증대 등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제도이용을 꺼리는 이유로는 경제적인 문제와 승진과 업무배치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직장문화를 지적함.

□ 한국 육아휴직제도의 과제

- 남성 육아휴직 사용 확대를 위해선 “동등한 부모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육아 등의 가족에 대한 책임과 직장에서의 책임이 남녀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부모가 함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붙임 2 행사 개요

- 행사명 : [개원 3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제도와 실행효과
- 일시·장소 : 2013년 8월 28일(수) 오후 2시~5시 40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
- 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후원 :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 목적 : 남성의 육아참여를 위한 제도를 도입한 핀란드, 스웨덴, 독일의 경험을 통하여 한국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프로그램

일정	내용	
13:30-14:00	등록	
14:00-14:20	개회식	사 회 : 김은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개회사 : 최금숙(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14:20-15:30	좌장: 정재훈(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제 1 세션	
	발표	핀란드의 육아휴직제도와 아버지의 양육참여 Anita Haataja(핀란드 Kela 선임연구위원)
		스웨덴 사례: 부성, 부모휴가, 직장 내 장애요인들 C. Philip Hwang(스웨덴 Gothenburg University 교수)
	토론	김인춘(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교수)
		신경아(한림대학교 교수)
15:30-15:50	휴식	
15:50-17:00	제 2 세션	
	발표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활용: 독일 사례 Andreas Thiemann(독일 DIW Berlin 연구원)
		한국 남성의 육아휴직 : 성과와 과제 홍승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최인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숙희(한양사이버대 교수)
17:00-17:50	종합토론	좌장: 장혜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범석(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 김숙자(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장) 김인춘(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교수) 신경아(한림대학교 교수) 최숙희(한양사이버대 교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이다.

현재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 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법령, 정부 사업, 계획 등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지원하고, 정부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983년 개원한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2007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